

교민 복지증진·권익보호에 감사

「로스앤젤레스」 시장 주최 만찬 만찬사

1981년 1월 28일

「브래들리」 시민 내외분, 귀빈,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우선 본인은 오늘 저녁 본인 내외를 훌륭한 만찬에 초대해 주시고, 또 본인과 한국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인과 일행을 위해 따뜻한 영접과 융숭한 대접을 해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로스앤젤레스」가 미국 서부지역의 경제·문화·금융·교육 및 교통의 중심지로서, 급속히 성장하는 살기좋은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태평양연안에 위치해 있는 동양의 관문이며, 우리 교포가 오래전부터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서 금번 이 곳이 미국방문의 첫 기착지가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영주하고 있는 우리 교포수는 15만이 넘고 있으며, 모두가 근면하고 성실히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시장!

귀하께서 오랫동안 시정을 맡아오시면서 모든 부문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만, 특별히 소수민족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시는 데 빛나는 업적을 남겼음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이민1세대들을 위해 2중언어교육제도를 활성화하고, 소수민족의 취업을 알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배려를 베풀어 훌륭한 업적을 이룬 것을 치하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인은 귀하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교포들의 많은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시어, 우리 교민들에게 격려가 되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로스앤젤레스」는 위에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1976년 미국은 독립 2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만, 이러한 뜻깊은 기념일에 즈음하여 우리 한국 국민은 미국 국민들의 따뜻한 우정을 기리기 위해 「우정의 종」을 기증한 바 있으며, 이 종은 지금 「로스앤젤레스」 근교 「산 페드로」에 설치되어 해마다 양국국경일에 타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는 1967년 우리 부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시민들의 상호교류 등 실질적으로도 건설적인 유대관계가 심화 발전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돈독한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어 나가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지난 30여년간 한·미 양국관계는 한국동란과 베트남전쟁을 통한 혈쟁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전통적인 우호 선린관계를 계속 심화 발전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부문에 걸쳐 상호협력의 터전을 넓혀 나감으로써, 양국간의 맹방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본인은 이번 뜻 깊은 「로스앤젤레스」 방문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베풀어 주신 후의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러한 아름다운 추억을 오래 간직할 것입니다.

귀빈,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브래들리」 시장의 건승과 「로스앤젤레스」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한·미 양국 국민의 우의를 위하여 축배를 듭시다.

감사합니다.

